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착수

토지소유자 협의매수 절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진행 중

남원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0일 밝혔다.

남원지역에 설립될 공공의대는 구) 서남대 정원 49명으로 출발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의료정책 강화에 맞춰 나후된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공의대의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묘개장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

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후 해당부지에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설명회를 열었으며, 대학설립 필수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학설립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9억원을 반영하는 등 대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장기표류로 인한 관련 법률안

의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본격적으로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 국가적인 의료 취약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효심행정 대표작 '첫 선'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 다채로운 프로그램실 배치

임실군 효심행정의 대표작인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30일 임실군은 심 민 군수와 송하진 도지사, 이용호 국회의원, 신대용 군의회 의장, 한원수 도의회 부의장, 관내주민을 비롯한 복지관이용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어르신이 행복한 아름다운 노후보장의 공간인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사 전달, 기념식,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내부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은 임실을 운수로 33-46에 위치해 있다. 기존 복지관은 낡고 오래되어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상당수 어르신들은 기존 협소한 면적에 따른 부족한 프로그램실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만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임실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었다.

신축된 노인종합복지관은 심 민 군수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만족스러운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6억원, 도비 7억원을 확보, 국비 49억을 포함하여 총 6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층 지상 3층 규모로 완공했다.

오랫동안 신축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주요시설로는 1층은 경로식당과 대한노인회 사무실, 2층은 대강당과 복지관 사무실, 운동처방실 등 6개의 프로그램실, 3층은 요가 및 무용교실 등 7개의 프로그램실로 건축됐다.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요가, 탁구, 정보교육,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민 군수는 "노인인구가 32.8%로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롭게 짓게 됐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보다 질 높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남원시는 9월 1일부터 모든 시내버스(43대)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구축 사업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올해 5월 1차 사업으로 시내버스 2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23대도 2차 사업으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통신사, 휴대폰 기종과 관계없이 'PublicWifi@Bus_Free'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시민 통신비 절감 및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남원시는 2019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주요 관광지인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전문대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 9월 중순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전에 구축한 광한루원, 남원예촌, 혼불문학관 등 관내 14개소 관광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으로 보건소,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관내 공공장소 31개소에 12월까지 구축 완료되면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존은 115개소 185대로 늘어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길남 삼화화학 대표는 지난 30일 군수실을 방문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에게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故 장진영 10주기 부친 장길남 씨 장학금 쾌척

임실애향장학회에 1억원 전달 윤암면 장진영 기념관도 마련

임실 출신의 영화배우 故 장진영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 주연 여배우로 '큰 별'이었던 장진영씨는 현재 고향인 임실군 윤암면에 마련된 기념관에 영면해 있다.

올해로 10주기를 맞아, 장진영씨의 아버지가 임실군청을 찾았다.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하기 위해서다. 아버지 장길남 삼화화학 대표는 지난 30일 군수실을 방문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에게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이 자리에서는 심 민 이사장은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을 뒤로하고 이렇게 장학사업에 힘쓰시는 장 대표님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부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들이 큰 일꾼으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길남 대표는 2010년 사재 11억여원을 들여 계암장학회를 설립해 불우한 학생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대와 우석대 등 지역대학교와 장진영 씨의 모교인 전주중앙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실천하고 있다.

9월 1일에는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영화계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장진영 기념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진영 기념관은 지난 2011년 5월 유족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후 고인과 가까웠던 지인들은 매년 기일에 이곳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고 한다. 10주기인 올해도 유족 등 고인과 가까운 지인들이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참여형 독서문화캠프 진행

'섬진강 무지개물고기' 전국 유일 선정... 국비 4500만원 확보

순창군이 '섬진강 무지개물고기'라는 참여형 독서문화캠프를 통해 독서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독서문화캠프' 공모사업에 순창군립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독서문화캠프에 순창군립도서관은 관내 순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선) 및 순창마을화

교협동조합(이사장 장교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섬진강 무지개물고기'라는 캠프명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된 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 독서캠프를 열 계획이다.

'누가 시월의 별빛을 훔치는가'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캠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진강 향가오래평장에서 10월과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관내 조순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120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2019 지방재정공시 완료

순창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월(당해연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연중 2회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순창군의 살림규모와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등 총 9개 분야 59개 항목의 공공공시와 특수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체 살림규모는 4917억원으로 전년대비 4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4499억원에 비해 418억원이 많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54억원으로 전년대비 68억원이 증가했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2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규모는 3562억원으로 전년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일반회계가 3366억원, 그 중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11억원(21.1%), 사회복지분야가 583억원(17.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 지방채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면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1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

남원시보건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선물용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2일부터 11일까지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과, 떡, 식용유 등 가공식품과 고시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하여 산채어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